

#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 Consumption Awareness and Behavior of Adolescents

심 영·오 수 경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Shim, Young · Oh, Soo Kyoung  
Dept. of Family Resource Studies and Housing, Seowon Univ.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and the behavior of adolescents about consumption. Two-hundred students attending in high school were selected, and surveyed using questionnaires. Among them, 196 students were used in statistical analyses,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in SPSS/PC+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evels of the awareness and the behavior of adolescents about consumption in each of purchase, use and disposition steps were more or less middle in terms of rationality or soundnes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awareness and the behavior on conspicuous-consumption and between the awareness and the behavior of imitated-consumption in a purchase step were negatively significant,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and the behavior on product frugality in a use step was positively significant. In a purchase step, the conspicuous-consumption behavior was affected by the conspicuous-consumption awareness and sex, while the imitated-consumption behavior was affected by the imitated-consumption awareness, sex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The consumption behavior on product frugality in a use step was affected by its awareness,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personal expense management.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behavior in a disposition was influenced only by monthly personal expenses.

### I. 서론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민소득 향상과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부계층의 급격한 재산증가는 파 소비로 불리어지는 비합리적이고 불건전한 소비행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비행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왔고 나아가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IMF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한 소비행태가 쉽게 변화

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는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행태가 성인층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필수적인 소비, 건전한 소비이며, 어디부터가 사치적인 비합리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소비인가에 대한 명확한 한계선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 이외의 모든 소비는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합리

적 소비로 볼 수 있으며, 그 비합리적 소비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비도덕적이며 건전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자유재량 소비액이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가족생활이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청소년은 구매영향자, 구매자,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족의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한은하, 1991; 양희, 1992). 이러한 청소년의 소비생활은 일반상품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서비스, 레저, 스포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지출 중 청소년에 의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소비행위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로서 청소년의 소비 의식과 행동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동료집단이나 타집단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상민, 1987; 한은하, 1991). 현재의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주체이며 장차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경제주체인 청소년의 소비문화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을 때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 및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로 성장하도록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은 미래의 우리사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금 우리의 경제위기 상황과 그리고 21세기에 더욱 심화될 국제화·개방화에 보다 건실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의식과 행태로의 유도는 이 시대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를 알아본다. 둘째,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의식과 소비행동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소비를 지향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소비의 개념

인간은 그가 추구하는 필요나 욕망의 충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한다. 즉, 인간의 소비행위는 필요나 욕망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획득하게 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소비행위의 개념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것만의 협의적 의미보다는 인간이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는 인간의 복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가 소유한 자원으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인간의 복지는 그 소비행위의 결과이다. 이러한 개념적 의미를 빌리자면 소비는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획득, 사용, 처분이라는 세 단계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이승신 외, 1996).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소비행동 중에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획득을 위한 시장에서의 구매만이 관심의 초점이었고, 특히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처분 단계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이승신 외, 1996). 이러한 차원에서 만일 구매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즉, 시장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구매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소비행위를 모두 합리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가 구매·사용·처분 단계라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이 모든 단계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건전 혹은 합리적 소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는 어떠한 형태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합리

적 소비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쟁점이 되어왔던 비합리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소비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행태

합리적 소비란 어떠한 것인가? 정준(1997)은 합리적 소비는 시장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상품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 성능, 효용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효용상의 우선 순위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이러한 합리적 소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스스로 필요한 만큼, 필요로 한 수준에서의 소비 가치관을 갖는다. 둘째, 비용절감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구매습관을 익힌다. 셋째, 소비자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자기통제력을 발휘한다. 넷째, 실질적인 이용가치와 효용 극대화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다섯째,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결국 합리적인 소비는 사회분위기나 유행을 따라가기 보다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개인의 주체적인 효용 극대화의 소비의식 확립과 이에 따른 소비행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소비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개인의 선택에 기초한 사적인 일로 간주되어 왔고, 이러한 차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 대중소비사회에서의 소비는 이러한 소비의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소비의 사회심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정준, 1997).

소비의 사회심리적 측면은 소비자 상호간의 의존성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재화와 용역은 전통경제학의 관점에서의 경제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보다는 소비자 자신의 선호를 선택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사회적 상징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더욱 크게 작용하여, 사회 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과소비라는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야기하도록 한 것이다. 즉, 소비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의 사회적 상징성은 모방과 차별화 등에 의해 소

비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소비형태와는 다른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과시지향(conspicuous consumption)의 소비와 과도한 소비(excessive consumption)의 양상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과시지향 소비는 과시소비, 모방소비와 실망소비를, 과도한 소비는 충동소비와 과잉소비를 포함하는 소비양상이다. 과시소비는 유명상표 선호, 고가상품 위주 구매 등으로 나타나는 소비양상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인 지위가 남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모방소비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하니까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무작정 추종하는 식으로 자신의 분수와는 달리 타인의 과시소비를 모방하려는 행태이다. 실망소비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자포자기하고 부유층의 소비행태를 추종하는 행태이다. 과잉소비는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행태이며, 충동소비는 치밀한 사전계획없이 돌발적으로 행하는 소비양상이다(박명희, 1996; 정준, 1997). 결국 소비는 소비자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소비의 제 단계에서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는 어떠한가? 건전소비교육지침서(재정경제원, 1996)에 따르면 사회의 건전소비는 소비의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매단계에서는 공동사회 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상호간에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용단계에서는 자원의 한계성을 알고 물자의 귀중성을 인식하여 물자절약 정신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처분단계에서는 이기적 소비태도를 버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청소년의 소비 특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생리적 성장 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후의 인간형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에서 청소년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라 할 수 있다(김문희, 199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비와 관련된

청소년기의 경험들은, 특히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학습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기간에 형성된 소비자 행동유형은 이후 성인으로까지 지속된다(Moore & Moschis, 1985). 따라서 청소년기는 소비자 사회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기는 어떠한 소비 특성을 나타내는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편의성에 따라 행동하며, 물질적인 것에 강한 집착과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편의주의적인 생활양식 유형을 보인다(강이주, 1984). 또한 양희(1992)와 최숙진(1983)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가지 정서적 불안,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소비자는 성인 소비자보다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소비의 각 단계별로 청소년의 소비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구매단계에서의 소비 특성을 보면, 청소년은 상품의 중요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금전 가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충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때가 많다(최숙진, 1983; Stampfl, 1979). 예를 들어, 의복을 구매할 때도 용도, 품질, 필요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유행하는 스타일과 색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 구매의 경향이 강하다. 이와같은 소비행동은 유명상표 선호, 외제 및 고가의 상품을 선호하는 과시소비, 모방소비, 충동소비의 구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사용단계에서의 청소년의 소비 특성은 물자 절약 정신의 부족과 물자의 낭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표적 사례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 하지 않고 새것을 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문구용품의 분실시 재구입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청소년 소비자는 자기 물건을 아껴쓰는 절약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어 물건을 잘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신제품으로 교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재정경제원, 1996).

처분단계에서의 청소년의 소비 특성을 보면 이웃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비태도를 보이며 기성세대에 비하여 학생들의 환경보호 의식은 높은 편이나 이를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은 미흡하다(재정경제원, 1996). 양희(1992)의 연구에서도 환경관련 부문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을 의

식하는 소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상에 의하면, 청소년은 소비의 제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특성을 나타낸다. 구매단계는 과시·모방심리에 의한 무분별한 브랜드, 외제 및 고급제품의 선호와 충동적 구매를, 사용단계는 물자절약의 부족을, 처분단계는 이웃과 환경보호에 대한 부족을 보인다.

#### 4. 선행연구 고찰

여기에서는 소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Moschis와 Churchill(1979)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 더 많은 소비자 지식을 갖고, 광고에서의 상품특성 정보를 더 잘 구별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소비자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기춘(198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소비자 역할태도에 있어서 높은 학년이 낮은 학년보다 더 긍정적인 경향을 띄며, 학년이 높을수록 소비자 능력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진화(1985)의 연구결과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소비자 행동을 더 합리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schis와 Churchill(1978)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소비자 지식을 가지며, 물질주의적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소비에 대해 더 강한 사회적 동기를 갖는다. 그러나 정진화(1985), 이기춘(1985), 천경희(1985)의 연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비자 행동에서 더 합리적인 성향과 긍정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춘(1985), 김영신(1985), 천경희(1985)의 연구에 의하면 용돈을 적게 받는 청소년은 화폐에 대한 경험이 적고 광범위한 소비재 상품의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돈을 많이 받는 청소년보다 구매기능도 낮고 합리적인 구매행동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용돈사용에 대한 연구(YWCA, 1990)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7.8%만이 용돈 사용내역을 기록한다고 하였고, 71.7%는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용돈의 무계획적 지출이 큼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용돈

관리의 문제점과 더불어 청소년의 용돈관리 소홀과 낭비적 소비성향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김문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의 월평균 총소득이 많을수록 청소년은 과소비 성향이 높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학년, 성별, 용돈액수, 용돈관리,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하여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1-1. 구매단계에서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1-2. 사용단계에서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1-3. 처분단계에서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구매단계에서의 소비에 대한 의식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사용단계에서의 소비에 대한 의식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처분단계에서의 소비에 대한 의식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평택시의 남녀 고등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의 편의상 평택시에 소재하는 남녀 고등학교를 각각 1개 교씩 선정하였다.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시기와 대학교 시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편의상 고등학교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 2) 측정도구 및 측정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 양 회(1992), 김문희(1996)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들과 건전소비교육지침서(재정경제원, 1996)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구매단계, 사용단계, 처분단계에서의 소비에 대한 의식 및 행동에 관한 영역과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구매단계의 소비는 청소년의 소비특성인 시장에서의 과소비, 모방소비, 그리고 충동소비에 관하여 각각 의식과 행동을 측정하였다. 이 중 과소비는 유명 브랜드의 선호에 관한 의식과 행동을, 모방소비는 친구나 좋아하는 연예인의 브랜드나 상품 혹은 style에 대한 모방에 관한 의식과 행동을, 그리고 충동소비는 필요없음에도 혹은 특별한 이유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관한 의식과 행동을 측정하였다. 사용단계의 소비는 물자절약에 관하여 의식과 행동을 측정하였다. 처분단계의 소비는 환경보호에 관하여 의식과 행동을 측정하였다. 이상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각 문항과 용돈관리에 관한 문항은 “그렇지 않다”의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2점, “보통이다”의 3점, “그런 편이다”의 4점,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식과 행동이 건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소비의 각 단계별 측정개념의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크론바하의 알파계수를 산출한 결과 .70 이상을 보임으로서 측정개념의 척도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과정에서 점수비교가 용이하도록 의식 및 행동에 관한 각 개념은 5점 만점으로 표준화하였다.

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학년, 월평균 용돈, 용돈관리, 월평균 가계소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월 평균 용돈과 평상시 소지하고 있는 용돈액수를 조사하였으나, 이 두변수들간에 .76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월 평균 용돈만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령과 학년은 각각 의미있는 변수로 간주되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만을 조사하였기에 회귀분석에 학년 변수를 사용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997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남녀 고등학생 25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1997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남녀 고등학교에 각각 100부씩, 각 학교에 배부된 질문지는 1, 2학년에게 각각 50부씩 배부하여 총 200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총 200부 중 199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19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다.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사용하였다. 피어슨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의식과 행동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 소비 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성별과 학년은 남학생과 1학년을 각각 비교집단으로 하여 가변수화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조사대상은 남학생이 49.5%였고 여학생이 50.5%를 차지하였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49%, 2학년이 51%를 구성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월평균 용돈은 2만원 이상 - 4만원 미만이 약 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4만원 이상 - 6만원 미만(22.4%), 6만원 이상(13.5%), 2만원 미만(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용돈은 약 39,830원이었다. 또한 평상시 지갑이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돈의 액수를 알아본 결과, 3천원 미만이 약 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3천원 - 6천원 미만, 6천원 이상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소지액수는 약 6,620원이었다.

한편 이들이 속해 있는 가계의 월평균 소득

을 보면,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의 가계가 약 56%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도 약 18%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749,580원이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 성 <sup>1)</sup>	구 분	빈 도 (%)
성별	남	97 ( 49.5)
	여	99 ( 50.5)
	계	196 (100.0)
학년	1	96 ( 49.0)
	2	100 ( 51.0)
	계	196 (100.0)
월평균 용돈	2만원 미만	17 ( 10.0)
	2만원 - 4만원 미만	92 ( 54.1)
	4만원 - 6만원 미만	38 ( 22.4)
	6만원 이상	23 ( 13.5)
	계	170 (100.0)
	평균(원)	39,829.41
평상시 가지고 다니는 액수	3천원 미만	78 (42.9)
	3천원 - 6천원 미만	67 (36.8)
	6천원 이상	37 (20.3)
	계	182 (100.0)
	평균(원)	6,621.98
가계의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19 (16.0)
	150만원-300만원 미만	67 (56.3)
	300만원-450만원 미만	22 (18.5)
	450만원 이상	11 ( 9.2)
	계	119 (100.0)
	평균(원)	2,749,580.00

1) 각 특성의 계는 missing cases로 인해 차이가 있음.

### 2.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 1)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수준

연구문제 1의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2>, <표 3>, <표 4>와 같다.

먼저 연구문제 1-1의 구매단계의 청소년의 소비 의식과 행동 수준은 약간 높은 점수를 낸 모방소비 행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었다(표 2 참조). 즉, 구매단계에서 청소년은 합리적이지도, 비합리적이지도 않은 소비 의식과 행동을 보였다.

<표 2> 구매단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 수준

구 분		평 균
과시소비	의식	3.116
	행동	2.287
모방소비	의식	2.597
	행동	3.536
충동소비	의식	2.495
	행동	2.873

의식과 행동간의 상대적인 점수비교를 해 보면, 과시소비를 제외하고는 구매단계의 소비에 대해 청소년은 의식보다는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비합리적 소비의 경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과시소비에 대한 의식은 평균 3.116이었으며 행동은 평균 2.287로 행동에 비해 의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과시하고자 하는 소비 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과시소비 행동이 적었다. 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제한된 용돈의 예산에서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모방소비에 대한 의식은 평균 2.597이었고 행동은 평균 3.536으로, 실제적으로 청소년은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방소비 행동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은 자신이 타인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구별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또래집단 혹은 준거집단의 소비를 추종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충동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 수준은 각각 평균 2.495, 2.873으로 의식과 행동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소비 의식과 행동별로 각각 구매단계의 세 가지 소비행태를 비교해 보면, 청소년은 과시 소비 의식이 모방소비 의식이나 충동소비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사고자 하는 청소년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는 모방소비가 가장 높은 점수를, 그 다음으로 충동소비, 과시소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또래집단 혹은 준거집단에 대한 청소년의 모방성향이 어떠한가하는 점을 반영해주는 것

이라 하겠다.

연구문제 1-2의 사용단계의 물자절약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수준을 살펴보면(표 3참조), 물자절약에 관한 의식은 평균 2.348이었고 행동은 2.507로 의식과 행동 모두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경제원(1996)의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처럼 물자낭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물자절약 정신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3> 사용단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 수준

구 분		평 균
물자절약	의식	2.348
	행동	2.507

연구문제 1-3의 처분단계의 환경보호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수준(표 4 참조) 역시 중간정도였다. 의식은 평균 약 3.0이었으며 행동은 평균 2.507로 약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행동이 의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희(1992)의 연구에서 밝힌 바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표 4> 처분단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 수준

구 분		평 균
환경보호	의식	2.959
	행동	2.788

결론적으로, 소비의 제 단계에서 보여주는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수준은 대체로 중간 수준으로 합리적이지도 비합리적이지도 않은 상태였다

2) 행동에 미치는 의식의 영향에 관한 회귀 분석

행동에 미치는 의식의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소비에 대해 각 단계별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5> 구매단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상관분석

구 분	행 동
과시소비 의식	-.5322***
모방소비 의식	-.2917***
충동소비 의식	-.1048

\*\*\*  $p < .001$

구매단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5 참조), 과시소비와 모방소비는 각각 의식과 행동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과시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은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계수 .5322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시소비에 대한 의식이 건전할수록 실제로는 과시소비 행동을 하는 경향이였다. 모방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은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계수 .2927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모방소비에 대한 의식이 건전할수록 모방소비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과시소비 및 모방소비 각각 모두 의식과 행동간의 부적인 관계들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의식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충동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용단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상관분석

구 분	물자절약 행동
물자절약 의식	.1991**

\*\*  $p < .01$

사용단계의 물자절약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6 참조), 물자절약에 대한 의식과 행동은  $p < .01$ 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계수 .1991로 비교적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물자절약에 대한 의식이 건전할수록 실제 물자절약 행동도 건전하였다.

처분단계의 환경보호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7 참조), 환경보호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과 행동은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7> 처분단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상관분석

구 분	환경보호 행동
환경보호 의식	-.1443

연구문제 2의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2-1의 구매단계의 행동에 미치는 의식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표 8 참조), 과시소비와 모방소비에 대한 의식만이 각각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시소비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과시소비 의식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별로, 이들은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과시소비 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학생일 때 과시소비 행동을 하였다.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는 이기춘(1985), 정진화(1985), 천경희(1985)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그들이 지적한 것처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더 합리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여기에서의 설명변수들은 청소년의 과시소비 행동을 약 36%정도 설명하였다.

모방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방소비 의식, 성별,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이들 중 모방소비에 대한 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모방소비 행동을 약 17%정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모방소비 의식과 성별은 모방소비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방소비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모방소비 행동은 적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모방소비 행동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전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결과는 과시소비 행동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이기춘, 1985; 정



<표 8> 구매단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회귀분석

변 수	행 동		
	$\beta$ (t-값)		
	과시소비	모방소비	총동소비
의식	-.5327 (-6.395)***	-.2732 (-2.880)**	-.0105 (-.107)
성별(여학생)	-.2057 (-2.394)*	-.1925 ( 2.004)*	-.1523 (-1.432)
학년(2학년)	-.0501 (-.623)	.1606 ( 1.793)	-.0105 (-.107)
월평균 용돈	.0394 ( .490)	-.1496 (-1.592)	.0062 ( .061)
월평균 가계소득	-.0193 (-.244)	.1249 ( 1.348)**	.0792 ( .797)
용돈관리	-.0851 (-1.036)	-.0178 (-.190)	-.1676 (-1.608)
R <sup>2</sup> (adjusted)	.3595	.168	-.0132
F-ratio	11.1049***	4.6328***	.7649

\* p < .05; \*\* p < .01; \*\*\* p < .001

진화, 1985; 천경희, 1985), Moschis와 Churchill(1978)이 지적한 것처럼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소비에 대한 사회적 동기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청소년은 실제 행동면에서 모방소비를 더 하였다. 이는 김문희(1996)의 연구에서 보여준 월평균 총소득과 과시소비성향의 관계처럼 월평균 소득이 많은 가계의 청소년이 타인의 소비형태를 추종해 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소득이 적은 가계의 청소년보다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모방소비 의식이 낮을수록, 남학생일 때, 그리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모방소비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동소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총동소비 행동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는 총동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다른 변인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2-2의 사용단계의 물자절약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물자절약에 대한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물자절약 의식, 월평균 가계소득, 용돈관리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약 19%정도의 물자절약 행동을 설명하였다. 그 중 월평균 가계소득은 가장 영향력이 있었으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물자절약을 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인 풍요

<표 9> 사용단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회귀분석

변 수	행 동
	$\beta$ (t-값)
의식	.2078 ( 2.337)*
성별(여학생)	-.0729 (-.761)
학년(2학년)	-.1064 (-1.194)
월평균 용돈	-.0751 (-.829)
월평균 가계소득	.2764 ( 3.075)**
용돈관리	.2551 ( 2.718)**
R <sup>2</sup> (adjusted)	.1872
F-ratio	5.0682***

\* p < .05; \* p < .01; \*\*\* p < .001

가 물자절약에 대한 의식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용돈관리는 물자절약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용돈관리를 잘 하지 못할수록 물자절약 행동이 건전하지 못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용돈사용에 대한 연구(YWCA, 1990)에서 지적한 용돈관리의 소홀과 낭비적 소비성향의 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또한 물자절약에 대한 의식이 건전하지 못할수록 행동 또한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물자절약 의식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용돈관리를 잘하지 못할수록 물자절약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3의 처분단계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의하면(표 10 참조), 환경보호 의식은 행동에 유의

<표 10> 처분단계의 소비 의식과 행동의 회귀분석

변 수	행 동
	$\beta$ (t-값)
의식	.0164 (.175)
성별(여학생)	-.0314 (-.309)
학년(2학년)	-.0790 (-.837)
월평균 용돈	.2973 (3.100)**
월평균 가계소득	.1150 (1.208)
용돈관리	.0221 (.223)
R <sup>2</sup> (adjusted)	.0688
F-ratio	2.3295*

\*\* p < .01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단지 월평균 용돈만이 환경보호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환경보호 행동이 건전하지 않았다. 이는 용돈이 많을수록 물질을 다소 낭비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월평균 용돈은 환경보호 행동을 약 7%정도 설명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환경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또 다른 변수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소비의 각 단계별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중 구매단계에서의 과시소비와 모방소비 각각 의식과 행동간의 부적인 관계는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의 일치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과시소비 및 모방소비에 있어서 이러한 의식과 행동의 부적인 관계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식에 관하여 조사한 Parseghian(1992)의 연구에서 보여준 소비 의식과 행동의 일치하지 않는 모습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비록 그들 스스로 건강식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음식을 선택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건강에 대한 그들의 의식과는 달리 그들 소비자 자신의 입맛 즉, 기호에 따른 음식 예를 들어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단 음식과 같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과시소비 및 모방소비의 의식과 행동의 부적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된 현대사회에서의 소비

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 효용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비의 사회심리적 측면 즉, 소비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사회적 상징성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소비 행동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비교적 사적이며 내부적인 성격을 띤 사용단계(몰자절약)에서의 소비행동 모습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비교적 공적이고 외부지향적이며 현시적인 성격을 띤 구매단계에서의 과시소비나 모방소비의 행동에 있어서는 소비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징성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즉, 외부로 보여지는, 타인에 대해 현시적인 경향이 강한 소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의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보다는 현시적인 사회적 상징성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함으로써 과시적, 모방적인 소비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생애에 있어서 다른 시기보다 특히 타인에 대해 차별화, 구별화되기를 강하게 원하는(과시소비), 또한 그러면서도 또래집단에 소속되기를 강하게 원하는(모방소비) 청소년기 소비자의 사회심리적 성향은 비록 청소년 소비자에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구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지나 의식이 있다할지라도 그러한 인지나 의식과는 다른 과시적, 모방적 소비 행동으로 표면화되는 것이라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현재의 소비자일 뿐 아니라 미래의 소비주체인 청소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의식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의 제 단계 즉, 구매단계, 사용단계 그리고 처분단계에서 보여주는 청소년의 소비 의식과 행동은 중간 수준으로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합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의식과 행동을 보였다. 둘째, 소비의 제 단계에서 소비 의식과 행동과의 상관관계는 구매단계에서는 과시소비와 모방소비가 의식과 행동간에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용단계의 몰자절약에 대한

의식과 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분단계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과 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셋째, 소비의 제 단계에서 소비 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 의하면, 먼저 구매단계의 과시소비 의식은 과시소비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과시소비 행동을 하지 않았다. 모방소비 의식은 모방소비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모방소비를 적게 하는 반면에 월평균 가계소득은 모방소비 행동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용단계의 물자절약에 대한 행동은 물자절약 의식에 의해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월평균 가계소득과 용돈관리 또한 물자절약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작용하였다. 처분단계의 환경보호 의식은 환경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월평균 용돈은 청소년의 환경보호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토대로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식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수준 결과는 청소년에 대한 소비의 제 단계에서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의식의 확립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문제 2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처분단계의 환경보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식은 분명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의식의 확립은 이를 행동에 옮기는 토대가 되어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상관분석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는 물자절약을 제외하고는 의식과 행동의 부적 관계를 보여줌으로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가 건전한 의식교육의 무가치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식은 분명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만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현재 청소년의 소비 의식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한 불일치는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의식에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소비의식 교육과 더불어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의식하는 바람직한 소비에 관하여 이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변화가 수반되는 청소년에 대한 소비행동 실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소비에 대한 의식 교육과 실천 교육은 단기적으로 그 변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성별에 따른 소비의 제 단계에서의 의식과 행동의 차이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상이한 소비 의식과 행동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용돈, 용돈관리, 월평균 가계소득은 모두 금전이나 물질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바람직하고 건전한 의식과 태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청소년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소비의 제 단계에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으며 이에 대한 보완·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 자료의 표집선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만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앞서도 언급한 바처럼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을 포함하는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표집의 편의상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집을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표집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본 연구의 한계는 청소년을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처한 환경은 그들의 소비 의식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환경은 매우 상이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의식과 행동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과 행동 수준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행하였을 뿐 유의차 검증을 통한 비교분석을 하지 않아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해석에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유의차 검증을 통한 비교분석의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회귀분석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매단계의 과시소비를 제외하고는 소비 행동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작은 편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델에 사용된 독립변수들보다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은하(1991). 청소년의 용돈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정경제원(1996). 건전소비교육지침서. 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Moschis, G. P., & Churchill, Jr. (1979). Consumer socialization: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 23-33.  
 Parseghian, P. (Oct. 19, 1992). Diners talk healthy--But eat traditionally. *Restaurant News*, 7.  
 YWCA(1990). 용돈실태조사.

### 참 고 문 헌

- 강이주(1984). 청소년의 생활양식유형 분석 - 서울시 고교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희(1996). 청소년소비자의 과시소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신(1987).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이론 및 경험적 분석. *충남과학연구지*, 12(2), 207-217.  
 박명희(1996). 소비자의사결정론. 학현사.  
 양희(1992). 청소년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이기춘(1985). 소비자 능력 개발을 위한 소비자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민(1987). 중·소도시 고등학생의 소비생활에 관한 행동분석 연구. 공주사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신 외(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정준(1997). 소비사회의 실상과 바람직한 소비문화의 모색. 연구보고서 97-03,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진화(1985). 청소년의 소비자지식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경희(1985).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숙진(1983). TV광고에 의한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